

국기와 국가

역사적인 뿌리를 내포하는 현대적 상징

일본의 국기는 히노마루이며 국가는 “기미가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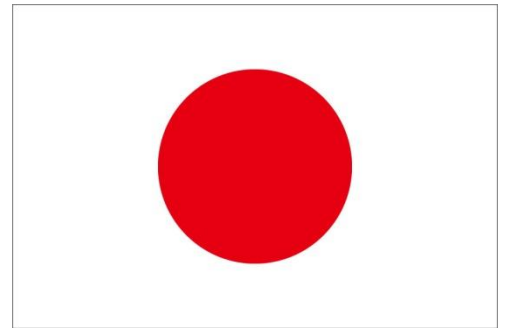
국기

붉은 원은 태양을 상징한다.

일본의 국기는 히노마루라고 한다. 그 이름은 문자적으로 “태양 원”을 의미하는 일본 단어 히노마루에서 유래하였다. 언제 태양 원의 상징이 처음으로 국기와 다른 깃발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12세기에 사무라이 전사들(부시)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미나모토 막부와 타이라 막부 사이에 권력투쟁이 있던 시기에 부시(무사)는 군센이라고 불리는 접는 부채에 태양 원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15세기와 16세기의 전 국시대에 다양한 군대세력들이 영향력을 겨루며 경쟁할 때 히노마루는 군대의 기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를 묘사하는 그림은 히노마루를 그린 많은 군기를 사용하는 군대를 묘사한다.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짙은 파란색 바탕에 금색 원을 그리는 경우도 있었다.

쇼군을 태운 선박에 달려있던 태양기

16세기 후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히노마루를 사용하였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17세기 초에 해외 무역선의 깃발로 사용하였다. 에도(현재 도쿄)의 17세기 도시에서 발견된 병풍 그림은 쇼군을 태운 배의 상징으로 사용된 히노마루기를 보여준다. 사코쿠 혹은 “국가적 격리” 시대(1639-1854) 동안 중국, 한국 및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제 무역과 교류는 금지되었지만 1954년 이후 도쿠가와 막부가 외국(미국과 러시아 포함)과의 무역을 시작하였을 때 일본의 무역



히노마루

기의 가로-세로 비율은 3:2이며 원은 한가운데 위치한다. 지름은 기의 세로 길이의 5분의 3이다.

선은 다시 히노마루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854년 도쿠가와 막부는 사추마 영지의 시마즈 나리아키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의 선박을 외국 선박들과 구별하기 위해 “흰색 바탕에 그린 히노마루기”를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히노마루기는 1860년 일본으로 파견된 일본의 관리들을 태운 공식 선박인 간린 마루에 표시되었다.

근대 일본의 국기로서의 히노마루

1868년 도쿠가와 일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잃자 메이지 정부가 설립되었다. 1870년 1월 27일 국가 대의원(다조칸)이 발표한 57호 선언에 따라 히노마루가 상선에 사용되는 공식적인 일본 국기로 선정되었다.

히노마루는 음력 달력이 공식적으로 양력 달력으로 대체되기 전체인 1872년에 처음으로 정부 건물에 사용되었다. 그때 많은 일반 가정들과 비정부 기구들도 휴일에 히노마루를 게양하고자 하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듬해 히노마루를 일본을 상징하는 국기로 공식 지정하는 많은 수의 고시와 문서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국가

"기미가요"의 가사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는 고대 시에서 유래하였다. 그 시는 일본어로 다음과 같다.

치요니 야치요니
사자레이시노
이와오토 나리테
코케노 무스마데

정부는 국회에서 국가의 국기와 국가를 성문화하는 의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가 "기미가요"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였다.

1999년 1월 29일 국회의 중의원이 전원 출석한 자리에서 총리대신인 오부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본의 현재 헌법에 따라 '기미가요'의 기미는 국가와 국민 단결의 상징인 천황을 의미한다. 천황의 위치는 주권이 귀속하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다.

'기미가요' 전체는 국가의 존재상태를 나타내며 주권이 귀속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존재하는 국가 그 자체와 국민단결의 상징으로서의 천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가의 가사를 국가의 영원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기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가사를 처음으로 작성한 사람은 알려져 있지 않다. 가사는 작자를 알 수 없는 10세기 '고킨 와카슈'와 11세기 '와칸 로에이슈', 두 개의 31음절 '와카' 문집에 포함된 시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로부터 상서로운 의식을 기념할 때 그리고 중요한 행사를 축하하는 연회에서 시를 낭송했다. 가사는 종종 '요쿄쿠'(노 공연의 노래 부분), '고우타'('사미센' 반주가 있는 대중가요), '조루리'('사미센' 반주가 있는 극적인 서술 찬가), '사이레이카'(축제의 노래), '비와우타'('비와' 반주가 있는 노래)와 같은 전형적인 성악형식으로 멜로디가 있는 음악에 맞추어 낭송했다. 가사는 또한 전래동화나 그 밖의 이야기에서 사용되었으며 에도 시대의 유명한 소설인 '우키요 - 조시'와 익살맞은 '교카'(열광적인 시)의 모음집에도 등장한다.

"기미가요"의 음악

1868년에 메이지 시대를 시작으로 현대 국가가 성립되었을 때는 "국가"라고 불릴만 한 것이 아직 없었다.

1869년 요코하마에서 근무하였던 영국군 군악대 지휘자인 존 윌리엄 펜톤은 일본에 국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일본의 군악대의 군인들에게 영국 국가인 "하느님, 국왕을 지키소서.(God Save the King.)"에 대해 알려주었다. 펜톤은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가사만 제공한다면 그가 음악을 작곡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군악대 지휘자와 상의하여 군악대원은 일본과 중국역사와 문학에 조예가 깊은 가고시마현의 포병대위 오야마 이와오(1842-1916)에게 국가를 위한 적절한 가사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오야마는 나중에 국방장관과 야전 사령관이 되었다.)

펜톤은 그의 음악에 오야마가 '호라이산'이라는 제목의 '비와우타'로부터 선택한 "기미가

"기미가요"

가사: 고전시 (작가 미상)
곡: 하야시 히로모리



기 미 가 - 요 - 와 치 요 니 - - 야 치 요 니 사 자 레
이 시 노 이 와 오토 나 리 테 코 케 노 무 - 스 - 마 - - 데

요”의 가사를 붙였고 첫 번째 “기미가요” 국가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멜로디는 오늘날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1870년 군대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동안 금관 악기의 반주로 연주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장엄함이 부족하다고 간주되어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1876년 해군악대의 지휘자 나카무라 수케츠네는 해군에 음악을 바꾸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의 제안에 근거하여 새로운 멜로디는 황실정원에서 연주되었던 곡에서 사용되었던 형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1880년 7월 네명의 위원회가 음악을 개정하였다. 그들은 해군악대 지휘자였던 나카무라 수케츠네, 육군악대 지휘자였던 오츠모토 오시토요, ‘가가쿠’(일본 황실음악) 공연의 황실 작곡가였던 하야시 히로모리 그리고 해군과 계약관계에 있었던 독일 작곡가인 프랜츠 에커트였다.

결국, 하야시 히로미가 만든 ‘가가쿠’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음계를 기초로 한 멜로디가 선택되었다. 에커트는 4부로 된 성악 편곡을 만들었고 새로운 국가가 1880년 11월 3일 메이지 천황의 생일에 황궁에서 처음으로 연주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기미가요” 국가의 시초이다.

현대 일본의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오늘날의 국경일에 의식이 진행될 때, 특별한 의식에서 공공행사가 진행될 때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국민을 환영할 때 히노마루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연주한다. 또한, 많은 일본시민은 국경일에는 대문에 히노마루를 게양한다. “기미가요” 음악은 또한 일본의 팀이 참여하는 국제 스포츠행사와 같은 비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연주된다. 많은 사람이 일본의 국기로 생각하는 ‘스모’ 경기에서 상패 수여식 전에 국가가 일반적으로 연주된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의 광범위한 사용이 관습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는 21세기 시작 전년에 성문법에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성

문화하는 법안이 1999년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기와 국가 관련법이 1999년 8월 9일 국회에서 실행되었다.

일본의 국경일

정월 초하루 (‘간지초’) 1월 1일
새해의 초하루를 기념한다.

성년의 날 (‘세이진노 히’) 1월 둘째 월요일
20세가 된 젊은이들을 축하한다.

건국 기념일 (‘겐고쿠 기넨노 히’) 2월 11일
이 국경일은 일본의 전설에 나오는 첫 번째 황제인 짐무가 통치를 시작한 날을 기념한다.

춘분 (‘순분노 히’) 3월 21일경
이 날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며 가족의 묘를 방문한다.

쇼와의 날 (‘쇼와노 히’) 4월 29일
격동의 나날을 거쳐, 부흥을 이룩한 쇼와 시대를 기리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

헌법 기념일 (‘겐포 키넨비’) 5월 3일
1947년 일본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초록의 날 (‘미도리노 히’) 5월 4일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친숙해져서 풍요로운 마음을 배양한다.

어린이 날 (‘고도모노 히’) 5월 5일
이 날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날이다.

바다의 날 (‘우미노 히’) 7월 셋째 월요일
이 날은 바다의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다.

산의 날 (‘야마노 히’) 8월 11일
사람들이 산을 즐기고 산이 주는 혜택에 감사하는 날이다.

경로의 날 (‘게이로노 히’) 9월 셋째 월요일
이 날은 노인들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날이다.

추분의 날 ('슈분노 히') 9월 23일경
이 날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며 가족의
묘를 방문한다.

체육의 날 ('다이이쿠노 히') 10월 둘째 월요일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66년
에 제정된 이 날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날
이다.

문화의 날 ('분카노 히') 11월 3일
이 날은 일본 헌법 (1946년 11월 3일 발표)
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와 자유의 이상이 문화
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기리는 날이다.

근로 감사의 날 ('긴로 칸샤노 히') 11월 23일
근로에 대해 감사하고 풍작을 기념하는 날이
다.

천황탄생일 ('텐노 탄조비') 12월 23일
1933년 이 날에 아키히토 천황이 탄생하였다.